장흥 '선사유적 공원화' 5년째 표류

영산강환경청 "수질보전 우려 시설 안된다"
고인돌 분산 배치 계획도 주민 반발에 중단

장흥댐 수몰지구내에 산재해 있던 고인돌 등 각종 문화재 보존을 위해 장흥군과 수자원 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사문화유적 공원화' 사업이 사전 환경성 검토에 발목이 잡혀 5년째 표류하고 있다.

선사문화유적 공원화사업은 12억2천800만원을 들여 수몰지구내에서 발굴된 149기의 고인돌 유적(석실과 석곽, 배바위 모형)을 한 곳으로 이전해 댐 경관과 연계한 볼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02년 10월 수자원 공사와 협약을 맺고 수변환경지구인 유치면 송정리 망향의 동산 일대와 용문리 일대 9만9천여㎡, 신풍리 일대 3만3천여 ㎡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뢰했다.

그러나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댐 주변내 9천900㎡가 넘는 모든 시설은 수질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내려져 2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장흥군은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월 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풍리 277-1번지 일대 사유지 9천441㎡를 매입, 공원 후보지로 잠정 확정했다.

군과 수자원공사측은 총 149기 가운데 배바위 모형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고인돌 70여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유물들은 장흥댐 하류에 조성된 생태공원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나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이마저 중단된 상태다.

문화재 전문가들과 일부 주민들은 선사문화유적 공원화 사업이 반 조각으로 쪼개져 추진될 경우 문화재적 가치와 관광지 특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댐 준공식을 가진 장흥댐은 현재 목포권을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 9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댐 사업의 일환인 선사문화유적 공원화 사업이 표류하면서 서류상으로 미준공 상태에 놓여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보성 대원사 왕벚나무 터널 '아름다운 길 100선'에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진입로인 왕벚나무 터널 5.5㎞가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혔다.

이 도로는 길 양쪽에 20년생 왕벚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중순에는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벚꽃길 중간에 위치한 백민 미술관을 둘러본 뒤 도보로 이동, 대원사와 티벳 박물관을 찾는 것도 빠트릴 수 없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나주교육청 교육혁신 큰 호응

멘토링제·희망 공동체 등 42개교 참여

나주교육청이 대대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2개 일선 학교가 다양한 교육혁신사업을 학교 실정에 맞게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는 교육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봉황초등학교의 경우 '교장·교사간 멘토링제(Mentoring)'를 도입, 성숙기 교사와 성장기 교사가 배움의 관계를 형성해 공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동강중학교는 '인간 중심의 장학활동, 희망 공동체 구축' 프로그램을, 전남과학고는 '탐구논문 발표를 통한 창의력 신장'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나주교육청은 교육혁신 우수학교 6개교를 선발해 지난 10일 '제 2회 교육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임을빈 교육장은 이날 "교육혁신의 각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확산을 통해 교육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목포 삼학도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조성 계획 변경…음악분수 광장·노벨상 기념관 등 내년 본격 추진

목포 삼학도가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지난 2001년 말 수립된 삼학도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 친환경 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3억 4천만 원을 투입, 용역을 맡겼으며 내년 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삼학도에 진입광장과 즈믄장터, 어린이 동산 등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이 자리에 음악 분수 광장과 노벨상기념관, 해양식물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목포지역 사회단체들은 삼학도 공원 조성 계획이 지나치게 관광시설 위주로 짜인 데다 너무 인공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시는 1천243억 원을 투입, 삼학도 일대 57만㎡ 부지에 2009년까지 호안수로와 교량 등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음악 분수광장 등 민자유치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삼학도는 유달산에서 무술을 연마하던 한 젊은 장수를 그리던 세 처녀가 그리움에 지쳐 죽은 뒤 학으로 환생했으나 장수가 이를 모르고 쏜 화살에 맞아 죽어 솟아난 섬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달콤한 한여름 밤…재즈에 빠지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1일 백운아트홀에서 '여름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을 비롯해 가수 윤미래, 힙합그룹 부가 킹즈와 바비 킴 등이 출연해 폭넓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였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멸종 위기 '대추귀고둥' 30마리
보성 회천면 일대 갯벌로 이송

새만금 간척공사로 멸종위기에 처했던 '대추귀고둥'이 청정지역인 보성으로 서식지를 옮겼다.

13일 보성군과 보성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만금 지구에 서식하던 '대추귀고둥' 30마리가 보성군 회천면 일대 갯벌로 이송됐다.

대추귀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 생물로, 기존 서식지였던 새만금강에 방조제가 들어서는 등 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진 것이다.

회천면 일대는 철쭉으로 유명한 일림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수질이 깨끗해 또다른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과 나탑대추기고둥, 기수고둥 등이 대량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복원사업이 성공하면 회천면 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기수고둥 등의 집단 서식지로 자리매김해 초·중·고등학생 등의 생태교육장으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한편, 대추귀고둥은 3~4㎝크기에 대추형태를 갖고 있으며, 담수가 들어오는 만조선 부근 갯벌에 서식한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천일염 특화단지 조성
해남군, 염전체험장도

해남군이 천일염 특화시범단지 및 염전체험장을 조성한다.

해남군은 친환경방식의 천일염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와 관광객이 생산에 참여하는 염전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천일염 특화시범단지는 함초 천일염 생산단지 등 15ha 규모로 조성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천일염은 칼슘·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풍부해 특화단지와 체험장이 조성되면 그 부가가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에서는 30개소 200만㎡에서 연간 1만7천t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영광 용암마을에 영어 배우러 가볼까

14~17일까지 '팜 스테이 영어 캠프' 개설

영광군이 군남면 용암마을에 '팜 스테이 영어캠프'를 개설한다.

영광군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군남면 용암골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농촌체험을 병행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화상 영어교육 여름 캠프'를 연다.

원어민 영어 강사 3명을 포함, 강사 9명으로 구성된 영어캠프는 관내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과 함께 , 생활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영어캠프를 기획한 영광군 관계자는 "농촌체험을 병행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한·일 청소년들 목포서 화합마당

16일부터 스포츠 교류행사

'제 11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행사'가 오는 16일부터 7일간 목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을 공식 및 연습경기로 나눠 유달경기장 등 목포지역 8개 운동장과 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218명의 일본 선수단은 체육 경기 외에도 유달산, 자연사박물관, 루미나리에 등 목포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시립교향악단 등 4개 시립예술단체로 구성된 합동 특별공연도 관람한다.

특히 1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는 한·일 청소년들의 만남을 위한 '친교의 시간도' 열린다.

시는 이번 대회 뿐만 아니라 오는 2009년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목포를 국제적인 스포츠 산업 중심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갈 방침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해군 장병들 신안서 한여름 봉사 땀방울

목포해역방어사령부 제36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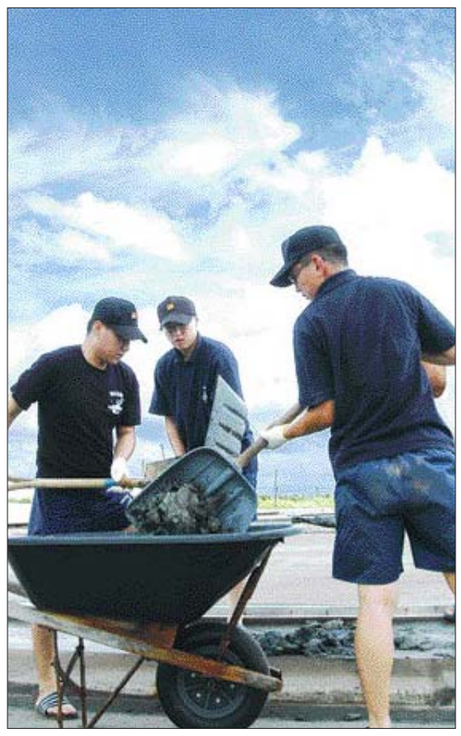
해군 목포해역방어사령부(이하 목방사) 예하 제 36전대 고속정 장병들이 8월 한 달간 신안군 비금도 우산마을주민들의 일손 돕기에 나섰다.

36전대 고속정 장병들은 6명(간부 1명, 수병 5명)이 한 조가 돼 자매 결연을 맺은 비금도 우산마을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3박 4일간 머물면서 마을 환경정비와 천일염 생산지원 등 섬마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있다. 〈사진〉

이들은 마을 진입로 보수와 제초작업을 비롯해 각종 기계·전자제품 정비와 농산물 수확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마을의 주소득원인 천일염 채취와 운반 등 천일염 생산 체험의 시간도 갖고 있다.

목방사 36전대는 지난 3월 우산마을과 자매관계를 맺었으며 4월에는 전대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장병이 마을을 방문해 동백나무 50그루를 심고 무료 이발봉사와 마을 해안가 정화활동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비금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천일염을 생산한 곳으로 전국 천일염의 5%를 생산하고 있어 '소금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불법어장 꼼짝 마!

완도군, 9월부터 합동 단속

완도군이 오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질서한 어장정리에 나선다.

완도지역은 일부 광어·전복 양식어민들이 불법으로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밀식(密植) 가두리 어장시설로 선박들이 인근 해역을 항해할 때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재정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해경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위법 양식어장은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으로 불법 양식장 시설을 확인하게 된다"며 단속에 앞서 어민 스스로 자진철거 하거나 또는 양식허가 기준에 맞춰 시설할 것을 당부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